



## 싱가포르증권거래소의 다크풀(Dark Pool) 가동계획

싱가포르는 지난 8월 12일 다자간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인 Chi-X Global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아시아 장내거래소로서는 처음으로 사설전자거래소인 다크풀(Dark Pool)을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하기로 하였음.

- 싱가포르증권거래소는 지난 8월 12일 대체증권거래소(Alternative Trading Platform) 중 하나인 Chi-X Global과 사설전자거래소(Dark Pool) 운영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함.
  - 대체증권거래소는 장내거래소의 주문체결시스템(Order Book)과 연결되어 있는 장외전자거래소(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또는 Light Pool)와 장내거래소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운영주체도 거래규모만을 알 수 있는 다자간거래시스템(Crossing Network 또는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형태로 운영되는 사설전자거래소(Dark Pool)의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음.
- 상기 다크풀 가동계획은 도쿄와 오사카, 시드니, 홍콩 등 역내 주요국 증권거래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증권거래소가 경쟁력 있는 거래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됨.
  - 싱가포르증권거래소는 장내거래소로서는 아시아 최초인 다크풀 가동을 통해 역내 자본시장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Chi-X Global은 장외전자거래소 구축의 선두주자인 Instinet(현재 노무라홀딩스의 전액출자 자회사)가 지역별 다자간거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 형태의 자회사로서 이번 다크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
  - 지난 2007년 유럽 최초의 다자간거래시스템으로 출범한 Chi-X Europe은 낮은 수수료와 신속한 처리속도 등에 힘입어 런던증권거래소의 벤치마크주가지수 종목 거래량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음.
- 다자간거래시스템인 다크풀은 특정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거래를 제시가격의 노출 없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지난 수년간 미국과 유럽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algorithmic trading: 대규모 주식물량 매매 시 최대한 가격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매매가 성사되는 방식)의 적용으로 인해 장내



거래소 주문체결시스템을 통한 대규모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다크풀 설립이 잇따랐음.

-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다크풀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주식거래 체결비중은 1~3%에 머물고 있음.

〈표〉 다크풀 설립 현황

설립주체	운영회사
개별회사	Instinet, SmartPool, Investment Technology Group, Liquidnet, NYFIX Millennium, Pulse Trading, RiverCross
증권회사	BNP Paribas, BNY ConvergeX Group, Citi(Citi Match), Credit Suisse(CrossFinder), Fidelity Capital Markets, Goldman Sachs Execution and Clearing, Knight Capital Group, Lehman Brother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UBS Investment Bank, Ballista ATS Ballista Securities, CLSA(BlocSec)
컨소시엄	BIDS Trading, LevelL ATS
거래소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The NASDAQ Stock Market, NYSE Euronext, BATS Trading, Direct Edge
기타	Chi-X(Instinet 자회사), Turquoise(공개가주문 및 비공개가주문 동시제공 시스템)
집합운영기관	Progress Apama, ONEPIPE(Weeden & Pragma Financial), Xasax Corporation

주 : 집합운영기관(Dark Pool Aggregator)이란 마치 인터넷 검색엔진과 같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다수의 다크풀과 연계되어 있는 통합점포시스템(One-Stop Shop)이라고 할 수 있음.

- 싱가포르증권거래소와 Chi-X Global이 각각 50대 50의 지분구조로 설립하는 다크풀 합작회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하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를 물론 호주와 홍콩, 일본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대량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동 합작회사는 중국과 인도 등 여타 역내 증권거래소들의 자본참여 내지 업무제휴 등도 염두에 두고 있음.
- 싱가포르증권거래소는 다크풀 가동이 대량주식거래로 인한 시장충격 완화 및 신규 투자자 유인 등 전반적인 거래환경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Chi-X Global 역시 상기 유럽 출범 사례에서와 같이 아시아에서도 자산운용가나 트레이딩 담당자들의 최적거래집행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큰 만큼 싱가포르 시장을 발판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향후 아시아시장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다양한 형태의 설립주체에 의한 다크풀 운영이 예상되나, 이와 관련하여 청산시스템 및 규제방식 정비 등은 주요 선결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
  - 당초 Chi-X Global은 호주 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였으나 호주 감독당국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방식 확정이 요구되면서 다크풀 합작회사 설립이 일단 유보됨.
  - 중장기적으로는 다크풀 거래시스템을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등 여타 상품영역으로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KIF**

다크풀(Dark Pool) : 정보회사나 증권사 등이 대량주식거래 시 장내거래소가 갖는 거래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사실 전자거래소로서 거래자의 익명성 및 제시가격의 비공개성이 보장됨